

The 18<sup>th</sup>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aturday, November 6, 2010, 9:00 a.m. – 2:00 p.m.  
Harry Harding Auditorium, 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

## “Medicine, Mental Health and Childhood in Korea: Past & Present”

### FEATURED SPEAKERS:

Young-Shin Kim, MD, PhD, MPH, *Yale University*  
Jin-kyung Park, PhD, *University of Toronto*  
Sheena Nahm, PhD, MPH *College of the Canyons*  
Roy Richard Grinker, Ph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lanah Uretsky, Ph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this colloquium, top scholars in Korean studies will focus on the history of medicine and mental health in Korea, especially in relation to reproduction and childhood. Speakers will discuss how,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iomedical research in Korea on reproduction and women's health was conducted as a political tool for the empire; the role of the media in the 20th and early 21st century in decreasing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and the growth of psychiatry, psychology, counseling, and cutting edge research on human behavior.

### BACKGROUND

The HMS Colloquium series provides a forum for academic discussion of Korean humanities in the context of East Asia and the world. The series was created by an endowment established by the estate of Hahn Moo-Sook, one of Korea's most honored writers, to uphold her spirit of openness, curiosity and commitment to education. The 18th Colloquium is co-sponsored by GW's Columbian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nd Institute for Ethnographic Research. <http://www.gwu.edu/~call/hms>.

### RSVP

Lunch is served. This event is free and open to the public. Reservations are required. RSVP with your name, affiliation, address, and phone number, and e-mail to [kimrenau@gwu.edu](mailto:kimrenau@gwu.edu).

\*\*\*\*\*

조지워싱턴대학교 제 18 회 한무숙기념 한국인문학 콜로퀴엄  
2010 년 11 월 6 일 (토), 9:00 a.m. – 2:00 p.m.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학대학, 해리하딩강당, 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 “한국의 의학, 정신 건강과 유년기: 과거와 현재”

초청강사: 예일대학교 김영신박사, 캐년스대 남신아박사, 토론토대학교 박진경박사  
토론자: 조지워싱턴대학교 리차드 그링커박사, 엘라나 우렛츠키박사

이번 콜로퀴엄에서는 한국학 석학들이 한국의 출산과 유년기에 관련된 의학과 정신건강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강연을 한다. 여기에서 토론될 주제들은 일본식민지 시대 한국에서의 출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생물의학 연구가 어떻게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적 도구로 실행되었는가, 20 세기와 21 세기 각종 언론이 정신질환의 치욕을 덜어주는데 한 역할, 그리고 한국의학의 정신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최첨단 연구의 발전이 토론된다.

한무숙(HMS)기념 콜로퀴엄에 대하여(<http://www.gwu.edu/~call/hms>):

미국의 수도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개최되는 이 연례행사는 서울 한무숙재단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1995 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 분인 소설가 한무숙(1918-1993)의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교육의 신조를 계승하고 재현하고 있다. HMS 콜로퀴엄에서는 한국학의 전통과 인문분야에 중점을 두고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미국내외의 여러분야의 석학들을 연사로 모시어 한국의 예술, 역사, 언어, 문학, 사상과 종교 구조등을 동아시아와 세계의 문맥에서 토론한다. 올해 18 회 모임도 GW 의 시거 (Sigur) 아시아학 센터, 문리과대학, 그리고 민족지학연구소가 후원한다.

### 등록: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나 준비관계로,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를 김영기교수에게 e-mail 로 보내 미리 등록을 해야함: [kimrenau@gwu.edu](mailto:kimrenau@gwu.edu), 202-994-7107.